

analyzing the change of mind. An ordinary person expresses his thought by language as a result of the division of *vijñāna* by *abhilāpavāsanābīja*. Bodhisattva also expresses his experience to other peoples by language. But the division of *vijñāna* of Bodhisattva is qualitatively different from that of an ordinary person in that acquiring the Hudugji (後得智, meaning wisdom attained later on), Bodhisattva awakes and recognizes the contents observed during the state of Mubunbyeolji (無分別智, meaning wisdom of nondiscrimination).

Finally I clarified that there is similarity between an ordinary person and bodhisattva in that their cognitive processes are formed by the active division of *vijñāna*. But there is also a difference between them in that the division of *vijñāna* of an ordinary person results from his desire whereas that of bodhisattva results from his mercy. This phenomenon is a unique aspect of *Yogācāra* theory, which does not appear in post-Wittgenstein theory.

#### Key Word

*abhilāpavāsanābīja*(名言熏習種子), the division of *vijñāna*,  
common discrimination, the rules of community,  
Hudugji(後得智, meaning wisdom attained later on)

✎ 투고일자 2012.10.30 | 심사일자 2012.11.25 | 게재확정일자 2012.12.13

## 신자유주의 체제의 대안으로서 화쟁의 사회경제학

이도흠  
한양대학교

1. 머리말
2. 신자유주의 체제의 모순
3.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상품-화폐 관계의 왜곡
4. 상품-화폐 관계의 불교적 현정(顯正)을 통한 자비의 경제학
5. 자연과 인간의 화쟁으로서 생태경제학
6. 불교공동체의 사회경제학
7. 맺음말

## 요약문

신자유주의 체제는 인간을 상품화폐의 노예로 만들며 탐진치를 끊임없이 확대재생산하고 이를 제한하려는 모든 제도를 규제란 이름으로 무장해제시켜, 양극화와 갈등을 심화하고 세상을 지옥과 가까운 곳으로 만들었기에 반불교적이다. 이 체제를 노동거부나 소비축소를 통하여 해체할 수 있는데, 전자에 가장 유용한 이론이 맑시즘이라면, 후자는 불교다. 이에 양자를 종합하여 대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를 화쟁의 사회경제학으로 명명한다.

우리가 불일불이(不二)의 연기론에 따라 타자란 서로 조건이 되고 상호작용하고 있는 또 다른 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타자를 위하여 나의 욕망을 자발적으로 절제할 수 있다. 화쟁의 사회경제학은 소욕지족(少欲知足)의 삶을 지향하면서 타자들과 재화를 나누면서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자비의 경제학’이다.

우리가 연기론과 불살생의 교리에 따라 지구상의 온 생명체가 깊이 연관되고 서로 작용하고 있음을 깨달으면, 자연을 훼손하고 생명을 죽이는 일을 멈추고 자연과 공존을 추구하고 온 생명을 내 몸 같이 귀중

하게 여기게 된다. 화쟁의 사회경제학은 인간의 목적에 따라 자연을 개발하여 물질적 생산을 해내고 상품화폐적 가치를 창조하는 현대성의 경제를 반성하고, 자연의 본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자연의 일부인 인간의 자기실현으로서 노동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개발과 가치 창조를 추구하는 ‘생태 경제학’이다.

현재 상황에서 화쟁의 사회경제학을 국가 단위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일은 힘의 역학관계상 쉽지 않다. 화쟁의 사회경제학은 지역사회를 ‘눈부처-공동체’로 전환하면 가능하다. 눈부처 공동체는 모든 구성원이 개인적 자유와 깨달음을 추구하면서도 타자를 자유롭게 하여 자신의 자유를 완성하는 주체가 되어 서로 상생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경제를 추구하는 공동체다.

## 주제어

신자유주의, 화쟁의 사회경제학, 원효, 마르크스, 화쟁, 눈부처공동체, 연기

## 1. 머리말

싸이가 유튜브에 올린 〈오빠는 강남 스타일〉이란 노래가 전세계에 걸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3억 명이 접속을 하고 빌보드 차트에 2위로 올랐다. 지난 10월 4일엔 이에 화답하는 싸이의 시청 앞 광장 공연이 열렸고 8만 명의 대중이 모여 열광하였다. 거기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2,646명 가운데 23명이 사망하여 마련한 분향소와 그날 현재 1,750일 동안 농성 중인 재능교육 농성장이 있었건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들 모두가 비정규직과 정리해고의 희생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임을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는 듯하였다. 전세계적으로 ‘Occupy wall street!’를 외치며 99%의 저항이 일고 있는 이면에는 자본이 만든 니치주의와 욕망의 포로가 되고 시물라시옹과 이미지에 현혹된 채 부유하는 대중들이 있다.<sup>1)</sup>

1) 니치(niche)란 성모 마리아상 등을 두기 위하여 벽에 오목하게 홈을 판 벽간(壁龕)을

신자유주의는 지금 무소불위의 위세를 떨치고 있다. 자본이 국가와 시민의 위에 군림하며 자본에 대한 모든 규제를 해제하고 노동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국가, 언론, 학자들이 자본과 연합관계를 형성하고서 신자유주의를 제도화하고 이 가치를 일상화·내면화하며, 이에 대한 저항에 대해서는 물리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재현의 폭력을 단호하게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또한 역사적 체제일 뿐이다. 국가와 자본의 카르텔 관계 자체가 양자의 정당성의 위기를 자초하였으며, 이 체제를 옹호하는 이데올로기였던 자유주의가 대중의 반발을 부르면서 평등과 정의를 기반으로 한 저항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의 동력인 금융자본의 무한한 착취는 정점에 이르렀다. 때문에 머지않아 이 체제는 종언을 고할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반대하지 않든, 우리는 새로운 체제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그렇다면, 불교가 새로운 체제의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불교의 교리는 경제제민(經世濟民)의 이름 그대로의 경제학에 어떤 자양분을 공급할 수 있을까. 원효의 화쟁철학을 중심으로 화쟁(和諍)의 사회경제학을 모색해 본다.

뜻한다. 현실에서 도피하여 정치와 계급의식, 사회의식 등을 소거시키고 일상의 행복과 안락을 추구하는 문화적 경향을 의미한다.

## 2. 신자유주의 체제의 모순

신자유주의란 ① 전통적인 경제영역에서 시장을 즉각적, 무조건적, 무제한적으로 확대·강화하고 ② 비경제적인 영역까지 포함하여 인간 생활 전반을 시장원리로 작동시키고자 하는 정책이념이며, 따라서 ③ 시장에 전인격을 포획시키고자 하는 기획이다.<sup>2)</sup> 이 체제는 자유로운 착취와 경쟁을 방해하는 모든 규제의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정부역할 및 개입의 최소화, 자유화와 개방화, 공기업과 교육 등의 민영화, 감세, 복지축소를 특징으로 한다.

신자유주의는 결국 빈곤과 실업의 세계화로 귀결되었다. 세계의 거의 모든 힘과 돈은 초국적 기업과 초국적 자본으로 옮겨갔다. 온갖 장애와 규제가 약화되자, 초국적 기업은 가장 금융비용이 저렴한 나라에서 돈을 빌려 가장 원료가 싼 나라에서 원료를 사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지역, 즉 기술력이 있으면서도 가장 노동력이 저렴한 지역에서 생산을 하고 판매와 수출을 최대화할 수 있는 나라에 생산기지를 두고 제품을 팔아 세금이 가장 낮은 나라로 기업소득을 이전시키고, 자본수익과 환차익이 가장 높은 나라로 자금을 이동시켰다. 이 결과, 1970년대 7,000개사에 지나지 않던 초국적 기업은 90년대 초반에만 35,000개사로 늘어났으며 이들은 세계무역량 가운데 7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엠이나 엑슨, 아이비엠 등 15대 초대형기업들의 수입은 120개 나라의 수입 합계보다 많다.<sup>3)</sup>

2) 조원희, 「신자유주의 이후의 경제」, 『진보평론』, 제42호, 2009년 겨울호, p. 257

3) 강수돌,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근본 문제와 삶의 대안」, 『신자유주의와 이주노동』, 제2회 이주노동자운동 정책심포지움 자료집, 2004년 11월, p. 5

무엇보다 신자유주의는 양극화를 심화하였다. 세계 부의 집중은 더욱 심각하게 악화되어 현재 세계 부유가계 0.7%가 전 세계 부의 1/3을 소유하고 있다.<sup>4)</sup>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상위 20% 소득자의 1인당 소득금액은 1999년 5천 800만원에서 2009년 9천만 원으로 10년 새 55%나 늘어 대부분 역대 수입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하위 20% 소득자의 1인당 소득금액은 같은 기간 306만원에서 199만원으로 54% 급감했다.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총 소득금액은 90조 2천 257억 원이었다. 이중 상위 20%가 가져간 소득금액은 64조 4천 203억 원으로 무려 71.4%에 달한다. 상위 20% 개인사업자가 총 소득의 3분의 2 이상을 거둬들인 반면 전체 신고자의 60%를 차지하는 상위 40% 이하는 고작 10%를 약간 넘는 소득밖에 가져가지 못했다.<sup>5)</sup>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순기능을 해체한다. 초국적 기업은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생산과 유통, 소비를 장악하고 통제한다. IMF, 스탠더드 앤 푸어스사나 무디스사 같은 신용평가기관들이 세계 금융의 흐름을 사실상 막후 조종하는 역할을 하여 한 나라의 의사결정 체계가 심각히 왜곡되고 ‘국민주권’은 무력화한다. 이들은 자유 무역과 ‘지적재산권’의 미명하에 각 나라에서 준수해 온 환경 보호 규정이나 토착 민중의 권익들을 체계적으로 해체한다. 이들은 막대한 이윤을 벌어들이면서도 조세 회피 지역을 이용하여 세금을 내지 않고 빼돌려 각 나라들이 가졌던 조세권마저 유명무실하게 만든다.<sup>6)</sup> 국가는 자본의

4) 조원희, 앞의 글, p. 259

5) 《연합뉴스》, 2011년 4월 25일자.

6) 강수돌, 앞의 글, p. 6-7 참고하여 필자가 재구함.

편에 서서 온갖 규제를 해제하고 기업에 특혜를 주며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을 반대하는 노동자에게 폭력을 가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은 신자유주의 체제의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다. 이는 경쟁주의와 니치주의를 심화하고 과잉욕망을 부추기며, 결국 공동체를 해체하였다. 바야흐로 자본이 꿈꾸던 세상 - 노동에 대한 아무런 규제 없이 '자유로운' 착취와 억압, 노동자 조직의 무장해제, 국가와 시민의 제한 없이 무한히 '자유롭게' 열린 시장 - 이 도래한 것이다.

### 3.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상품-화폐 관계의 왜곡

$$M-C(LP+MP)-P-C'-M'$$

①                      ②

작년에 100을 생산하였으면 올해 최소한 103 정도는 생산하여야 망하지 않듯, 자본주의는 '확대 재생산'을 해야만 살아남는 체제다. 자본가는 맨 처음에 화폐(M)를 자본으로 하여 생산수단(MP)과 노동력(LP)을 구입하여 생산과정(P)을 통해 상품(C')를 만들어 시장에 팔아 돈(M')을 벌어드린다. 이때 M'은 M보다 많다. 생산과정에서 잉여가치가 발생하였고 이를 자본이 착취하였기 때문이다.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자본은 M'를 개인이 소비하지 않고 다시 재투자하여 M'', M'''로 지속적으로 불리면 된다. 자본은 이윤확대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속성을 보이기에 조건만 맞으면 이 확대재생산의 속도는 폭발적

이다.

①의 노동과정에서 자본주의 노동 자체가 소외되고 억압되고 착취된 노동이지만, 신자유주의 체제에 와서 이는 더욱 극단화하였다. 기업은 과도한 이익을 위하여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고 비정규직을 늘렸으며, 이에 저항하면 용역폭력이나 국가폭력을 동원하여 이를 억눌렀다. 자본과 국가 연합체의 폭력은 부당한 것이고 불법이지만, 항상 그것은 노동자의 연대와 실천을 넘어선다. 이는 신자유주의 체제에 와서 더욱 심화되었다. 이것은 현 상황에서, 국가와 자본 모두 정당성의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국가와 자본의 연합체를 전복할 만한 노동자 세력의 폭력 혁명이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노동자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착취당하면서도 저항할 채널을 상실하였고 기업과 국가는 물리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재현의 폭력(the violence of representation)을 가하였다.<sup>7)</sup>

②의 소비 과정에서도 왜곡은 현저하였다. 자본주의가 들어오고 60년대 이후 고속성장을 거듭하면서 한국 대중의 물질 욕망은 고조되었다. 자본가는 절대 다수가 프로테스탄트식의 기업 윤리는 거의 없는 천민 자본가들이었다. 천민 자본은 국가 및 언론과 유착관계를 맺고 국가의 보호 아래 노동자를 최대한으로 착취하고 언론과 더불어 국민의 소비를 한껏 조장하였다. 60년대부터 초고속으로 진행된 물질 위주

7) 재현의 폭력이란 예술이나 언론을 통해 왜곡되어 재현된 것이 실제 현실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확대하고 이들을 타자화하고 배제하고 폭력을 행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런 현실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에 대해 조중동은 '과격폭력분자', '경제혼란주범'으로 재현하였고, 이는 실제 현실에서 다른 회사들이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2,646명 가운데 단 한 명도 재취업을 허용하지 않는 현실을 구성하였다.

의 산업화는 국민을 물신의 노예로 만들었고, 80년대의 증권붐과 투기 붐은 대다수의 국민에게 투기군적인 의식을 주입시켰다.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IMF와 신자유주의다. IMF위기를 계기로 한국 대중은 세 방향에서 물적 욕망을 극대화하게 된다. 자본제 사회에서 욕망은 타자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기에 필연적으로 폭력적이다. 때문에 이를 억제하는 것은 타자에 대한 공감과 윤리다. IMF 이전에는 동네에 골목문화가 남아 있었고 회사에서도 직원 사이에 공동체적인 관계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가가 미국식 해고를 주도하면서 공동체적 관계는 일시에 무너져버렸다. 이후 타자와 공동체의 시선을 의식하여 억제하던 욕망이 분출하게 된다. IMF 위기의 극복이 긍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와 기업은 수많은 선량하고 성실한 국민들을 실업자와 낙오자로 만들었다. 이로 많은 국민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물적 축적을 해야 한다는 극단의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다. 디지털 문화 또한 이를 조장하였다. 문자시대에서 영상시대로 이전하면서 대중들은 현실이 아니라 대중문화가 만든 이미지에 현혹되어 과잉 소비를 한다.

#### 4. 상품-화폐 관계의 불교적 현정(顯正)을 통한 자비의 경제학

소련이 해체되었지만,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체제의 대안을 모색하는 과학으로서 마르크시즘만큼 유용한 이론 및 지표는 없다. 불교 또한 ‘중세의 유물’이나 ‘성인들의 신비한 은유놀이’에서 벗어나려면

현실의 토대 위에 서야 한다. 불교와 마르크시즘은 인간해방이 이루어진 ‘계급 차별 없는 이상사회’라는 ‘같은 꿈’, 즉 동몽(同夢)을 꾸었고 지금도 꾸고 있다. 불교와 마르크시즘의 결정적인 차이는 ‘꿈’이 아니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방법, 실현 조건 등이다. 이렇게 볼 때, 불교와 마르크시즘은 마치 동상이몽(同床異夢)의 뒤바뀐 조합, 즉 동몽이상(同夢異床)의 관계에 놓여 있다.<sup>8)</sup>

붓다와 마르크스는 다른 점도 많지만 같은 점도 많다. 신적 존재를 부정하고 이 세계를 쉽없이 변화하는 것으로 무상(無常)의 관점에서 파악하였으며, 기존질서와 논리는 물론 기존의 텍스트에 대해 비판적이고 해체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각자의 이기심과 탐욕을 버리고 이타적이고 대자적인 실천을 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세계와 인간 사회를 실체론이 아니라 관계의 사유로 바라보았다. 무엇보다도 붓다와 마르크스는 신분과 계급의 차별이 없이 만인이 평등한 이상사회를 꿈꾸었다.<sup>9)</sup> 이런 맥락에서 양자의 대화를 시도하자.

①과 ②의 대안을 불교의 입장에서 모색하자. ①의 과정에서 노동거부를 달성하거나 ②의 과정에서 소비거부를 조직화하면 신자유주의 체제는 무너진다. 여기서 ①의 노동을 불교적으로 올바르게 하는 길은 무엇인가. 박경준 교수와 종명 스님의 연구를 종합하면,<sup>10)</sup> 『잡아함경』

8) 유승무, 「불교와 맑시즘의 동몽이상(同夢異床)」, 『불교평론』, 40권, 2009년 9월 1일, p. 121

9) 앞의 세 가지는 트레버 링이 『붓다, 마르크스 그리고 하나님』(서울: 민족사, 1993) 162-165쪽에서 지적한 것이고, ‘인간 해방 및 이상 사회의 추구’는 유승무 교수가 위의 글에서 밝힌 것이고, 관계의 사유로 바라보는 것, 이타적이고 대자적인 실천과 해체적 입장은 필자가 추가한 것이다.

10) 박경준, 『불교사회경제사상』(서울: 동국대출판부, 2010), p. 234-238; 종명, 「왜 일하며 수행해야 하는가」, 『불교평론』, 19호, 2004년 가을호, p. 261-268

에서는 “중중(種種)의 공교업처(工巧業處)로 스스로 생활을 영위하라.”라고 말한다. 『숫타니파아타』에서는 “이 밭갈이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감로의 과보를 가져옵니다. 이런 농사를 지으면 온갖 고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라고 말하였고, 『유마경』(방편품)에서는 “법을 굳게 지키어 어른들과 어린이를 가르치며, 모든 생업의 경영이 순조로워 세속적인 이익을 얻지만 그것에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했으며, 또 『법화경』(법사공덕품)에서도 “그가 설하는 모든 법이 그 뜻을 따르되 다 실상과 같아 서로 위배되지 아니하며, 혹은 세간의 경서나 세상을 다스리는 말씀이나 생업을 돕는 방법을 설할지라도 모두 정법에 따르게 되리라.”라고 했다. 이 『법화경』 구절을 놓고 천태지의는 “생산업이 모두 실상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며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우바세계경』은 복전(福田)을 부모와 스승에 봉양하는 보은전, 불법승 삼보를 공경하는 공덕전, 가난한 자에게 시여하는 빈궁전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경전을 살펴보면, 불교의 노동관은 마르크스의 노동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노동이란 (돌덩이의 땅을 쟁기로 갈아 기름진 밭으로 변화시키는 것에서 보듯) 인간 주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기 앞의 장애를 극복하고 세계를 자신의 의도대로 개조하고 진정한 자기실현을 이루는 행위이자, (만 원어치 밀가루와 계란과 이스트를 사서 빵기계를 이용하여 천 원 짜리 빵 열세 개를 만드는 것에서 보듯) 생산도구를 이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생산을 해내는 행위이자, (이 빵으로 굶주리는 자를 배부르게 하는 데에서 보듯) 더 나아가 타자를 자유롭게 하는 실천행위다.

불교의 노동관도 생활유지, 가치 창조, 자아의 실현, 사회정의 구현

행위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잡아함경은 생활유지의 노동을, 숫타니파아타는 가치창조와 자아실현으로서 노동을, 법화경은 정의 구현으로서 노동관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세계 개조 부문만 빠져 있는데 이는 『보살본행경』에서 “제가자로서 정진하면 의식이 풍족하고 생업도 잘 되어 멀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으며, 출가자로서 정진하면 온갖 수행이 성취된다.”라고 한 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정진을 노동에 포함시키면 문제가 해결된다.<sup>11)</sup> 정진으로서 노동은 이를 통해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불교에서 노동이란 “생업을 영위하는 행위이자 자연을 변화시켜 감로의 과보를 생산하거나 무명과 미혹의 세계를 깨달음의 세계로 개조하여 온갖 고뇌에서 풀려나 자아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중생을 구제하고 삼보에 시여하는 행위”다. 이로써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불자들이 적극적으로 노동을 하고 이를 통해 재화를 얻고 증식하는 길이 열렸다.

다음의 문제는 이는 이상형으로서 노동관이고,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이 소외되는 양상을 어떻게 불교교리 안에서 해결하느냐는 것이다. 이의 해결책은, 박경준 교수가 제시한 대로, 연기법과 사성체를 적용하여 유전문(流轉門)의 노동과 환멸문(還滅門)의 노동을 구분하는 것이다. 유전문의 노동이란 고통을 끝없이 재생산하는 성질의 노동이고, 환멸문의 노동이란 모든 괴로움이 없이 열반을 지향하는 성질의 노동이다.<sup>12)</sup> 곧, 자본주의 체제는 무명과 욕망에 바탕을 둔 유전문의 노동을 강요하지만, 불자는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행

11) 박경준, 같은 책, p. 245

12) 박경준, 같은 책, p. 239

동하면서 팔정도(八正道)에 바탕을 둔 환멸문의 노동을 지향하는 것이다.

소외는 사물과 인간을 교환가치로 대체하는 데서 비롯한다. 마땅히 팔정도를 지켜 정념(正念)을 이룰 일이다. 정념에 도달하여 여실지견(如實知見)으로 사물과 인간을 바라보면 교환가치에 얽매어 일어나는 탐진치도 사라진다. 하지만, 문제는 시장에 있다. 홀로 수행할 때는 이것이 가능하지만, 시장체제에 얽혀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교환가치에 이끌리고, 이는 이기심과 탐욕을 낳고, 결국 소외를 야기한다. 이 경우 내 앞에 교환가치가 침투하지 못하는 세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을 만날 때 이해관계를 떠나서 도반으로 만나고, 재산증식을 한다면 타인에 대한 영향을 따져보고,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이기심과 탐욕을 버리고 다른 사람이나 자연 등 모든 연관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②에서 소비를 올바르게 하는 길은 무엇인가. 답은 욕망을 자발적으로 절제하고 소욕지족(少欲知足)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불교는 욕망의 확장과 물질적 소비를 통해서 행복해 질 수 없다고 말한다. 불교는 개인의 깨달음과 공동체적 삶을 통하여 소외를 극복하라고, 무소유의 삶을 통해 화폐증식의 욕망을 없애라고, 무한한 소비와 향락의 욕망을 절제하는 삶을 살라 가르친다. 부처님께서 출가수행자들이 ‘삼의일발(三衣一鉢)’이나 ‘육물(六物)’만 소유하는 무소유의 삶을 살라 일렀으며, 이 계율을 어기면 모든 소유물을 4인 이상의 도반들 앞에 내놓고 참회해야 했다. 달마대사는 ‘구함이 있으면 모든 것이 고통이지만 구함이 없으면 이 자리가 곧 극락’이라고 말하며 무소구행(無所求行)의 실천을 제시했다. 나아가 육조 혜능 역시 욕망을 줄이고 소박

한 삶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소욕지족(少欲知足)을 설교했다. 불교의 소비에 대한 입장은 물질적 욕구의 충족이라기보다는 욕망의 제어로 표현되는 검소와 절제와 생활을 통하여 적은 소비로 만족을 얻고 시여(施與)의 종교적 목표에 도달함으로써 재(財)의 최대효용을 달성하는 것이다.<sup>13)</sup>

불교적 경제행위에서 필요한 것은 연기와 중도에 대한 깨달음이다. 내 호흡만으로도 내 얼굴 앞 대기의 미생물이 살고 죽으며, 그리 달라진 대기가 나와 타인의 몸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듯, 자본주의 체제에서 모든 것이 서로 조건이 되고 작용한다. 인간은 충분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존재인 동시에 연기를 깨달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서로 싸우던 두 사람이 실은 이복형제임을 알면 싸움을 멈출 것이다. 모든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이처럼 나와 다른 타자가 이복형제처럼, 부모와 자식관계처럼 서로 연기되어 있음을 깨달으면 우리는 욕망을 자발적으로 절제할 수 있다. 그를 잊고 자기만 살려 하면서 세계 자본주의는 금융위기를 맞았고, 급기야 99%의 저항이 일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차원에서는 나와 밀접한 연관관계 속에 있는 타자를 위하여 욕망을 자발적으로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의 차원에서는 “기업은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환경, 인권, 노동, 지역사회 등을 고려한 사회적 성과를 얻어야 존립근거를 갖는다.”에 입각한 ‘영리기업의 사회책임경영(CSR)’이 요청된다.

시장주의자들은 규제와 간섭을 없애고 자유롭게 놔두어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저절로 자기조절을 하여 자원배분을 잘한다고 주장

13) 박경준, 같은 책, p. 209



한다. 하지만, 이는 시장을 실제로 본 데서 비롯된 망상이다. 시장은 다른 시장, 국가, 기업, 은행, 생산자와 소비자와 연기관계다. 무수한 연기관계 속에서 한 쪽의 야만과 탐욕은 타자의 희생과 고통을 야기한다. 견제와 감시의 시선이 사라지면 서로 야만과 탐욕을 부추기게 된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야만과 탐욕을 견제하던 장치, 정의의 원칙을 모두 규제로 몰아 해체하였다. 이의 귀결은 99%의 빈곤과 죽음, 1%의 독점과 타락, 금융위기와 대공황의 유행이다. 반면에 연기론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서로가 서로의 역동적인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정의의 원칙을 지키면서 경제행위를 한다.

불자가 재물에 대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는 중도다. 재물에 집착하는 것은 나쁘지만, 이를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멀리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그럼, 불교를 자본주의와 연관하여 해석할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앙굿따라 니까야Anguttara Nikāya』에 “비구들이여, 눈먼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여기에 어떤 사람은 재산을 얻거나 늘리는 눈을 갖고 있지 않다. …… 비구들이여, 두 눈 가진 이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가? 그는 재산을 얻거나 늘리는 눈을 갖고 있다. 그는 또한 선한 방법과 악한 방법, 비난받고 칭찬받는 방법, 천하고 고상한 방법, 떳떳하고 어두운 방법을 잘 분별하는 눈도 갖고 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사람을 두 눈 가진 이라고 부른다.”<sup>14)</sup>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니까야에서는 재산의 획득과 증식을 하지 못하는 이를 눈 먼 사람으로, 재산의 획득과 증식은 행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윤리적 정당성을 상실한 이를 한 눈만 있는 이로, 재산의 획득과 증식을 할 줄 알

면서 이를 윤리적으로 정당하게 행하는 이를 두 눈이 있는 자로 분류하고 있다. 일정한 윤리규범에 따라 재산을 획득하고 증식하는 자야말로 세 부류의 인간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자다.

혹자는 업의 논리에 따라 가난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시간이 업과 얽히면서 업은 시간에 따른 존재의 변이가 정의롭게 일어나도록 통제하는 원리가 된다. 짧고 직선적인 시간관만으로 보면, 착한 자가 고통을 받고 선한 일을 하면 손해 보는 부조리로 만연한 것이 세상이다. 그러나 길고 둥그런 시간관으로 보면, 선한 자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전생의 죄업을 씻는 과정이다. 곧 선한 자가 지금 가난한 것은 전생에서 죄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고통을 받는 것이며, 지금의 고통은 고통이라기보다 선업을 쌓는 과정이다. 지금 돈을 잘 벌더라도 그를 좋은 일에 쓰지 않으면 악업을 짓게 되어 후생이 편하지 않다. 그러니, 돈을 벌더라도 보시를 많이 해야 후생이 편안한 것이다. 보시는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일이다.

이처럼 화쟁의 경제학은 연기론과 업설에 따라 자기실현과 깨달음의 과정으로서 노동을 하여 가치를 창조하고 타자와 나의 깊은 연관관계를 파악하여 소육지족의 생활을 하며 적은 소비로 만족을 얻고 그를 편안하게 하여 나를 평안하게 하고 선업을 쌓아 재(財)의 최대효용을 달성하는 자비의 경제학이다.

## 5. 자연과 인간의 화쟁으로서 생태 경제학

이런 자비의 경제학의 프레임 안에서 화쟁과 마르크시즘을 결합하

14) A. N. I., pp.111~112. 박경준, 앞의 책, p. 168-169 재인용.

자. 우리는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40% 가량이 멸종위기에 있는 전 지구차원의 환경위기와 가용 자원이 30년밖에 남지 않은 절박한 지경에 있다.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사항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경제학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학을 수립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하여야 하는 작업은 마르크시즘 안에서 ‘자연의 인간화’와 ‘인간의 자연화’를 변증법적으로 종합한 후 양자를 화쟁시키는 것이다.

현대는 자연을 개발과 착취의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마르크시즘 또한 큰 틀에서는 현대성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자본주의적 모순에 의한 환경문제와 접하였을 때 마르크시즘은 이중적이다. 환경위기를 낳은 근본적인 동인인 자본주의 모순을 비판할 때 마르크시즘은 매우 예리한 분석도구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자연의 한계 문제를 그리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았다. 마르크스는 “물질적 필수성의 영역은 그의 욕망의 결과로서 확대된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욕망을 만족시키는 생산력도 증가한다.”<sup>15)</sup>라며 생산성 증대를 위한 욕구 충족의 증대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어느 장(場)이든 탐욕은 무한하게 충족될 수 없으며 한계에 도달하여 위기를 맞게 마련이다. 마르크스는 시장의 장에서는 이점을 잘 분석하였으나 자연의 장에서는 그렇지 못하였다. 자본의 탐욕이 과잉생산을 낳고 이것이 기업 도산과 금융위기를 부르는 ‘생산의 무정부성’, 그에 의한 공황에 대해선 아주 탁월하게 통찰하였지만, 자본의 탐욕이 자연의 빈틈마저 착취하여 자연의 공황상태라 할 ‘전 지구차원의 환경위기’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미처 예측

15) K. Marx, *Capital*, Vol.3(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67), p. 820

하지 못하였다.<sup>16)</sup> 이에 빈틈이 사라져 자연이 한계가 다다른 시대의 자본론,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노동과 생산의 문제 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요청된다.

마르크시즘은 자연의 본원적 가치보다는 그 도구적 가치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간중심주의다.<sup>17)</sup> 도구를 써서 땅을 밭으로 전환한 후 이를 갈아 씨를 심고 추수를 하는 농부에서 보듯, 마르크시즘은 인간과 자연을 이분법적으로 분할하고 인간이 자연에 대해 우월한 위상에서 자신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대상으로 자연을 이용하여 생산을 이루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에 이분법에서 퍼지적 사고로, 인간중심주의에서 생태적 사고로 전환한 패러다임에서 마르크시즘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마르크시즘은 인간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목적대로 자연을 이용하여 생산을 향상하는 것을 조장한다. 최근에 허리베이는 “마르크시즘은 노동과정을 통하여 다룰 수 없는 자연조건을 과소평가하였고 인간의 역할과 기술력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였다.”<sup>18)</sup>라고 지적한다. 마르크스는 한 마디로 자연에 대한 기술중심주의를 유지하고 있고, 이는 자연의 착취를 정당화한다. 이에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한 바

16) 이런 점은 1970년대 와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니 당시에 마르크스가 이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고, 현재 살아있다면 공황처럼 이 점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하였을 것이다.

17) Robin Eckersley, *Environmentalism and Political Theory an Ecocentric Approach*(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2): 최병두, 「자연의 지배, 탈소외, 승인-맑스주의적 생태학에서 인간과 자연 간 관계의 재고찰」, 『도시연구』 제3호, 한국도시연구소, 1997, p. 186 재인용.

18) Jean-Marie Harribey, “Ecological Marxism or Marxian Political Ecology?”, Jacques Bidet and Stathis Kouvelakis (eds.), *Critical Companion to Contemporary Marxism*(Leiden/Boston: Brill, 2008), p. 194

탕 위에서 노동을 매개로 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 다시 성찰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마르크스에게 이와 달리 자연을 보는 관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마르크스는 “인간의 신체적, 영적 생활이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이 그 자신과 연결되어 있음을 순전히 의미한다.”<sup>19)</sup>라고 말한다. 마르크스는 인간이 자연과 유기적이고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자연에 속해 있는 내재적 존재임을 인식하였다. 이는 인간과 자연의 이분법을 극복할 수 있는 지평을 열며, 자연을 대상이나 도구로 간주하는 것 또한 넘어서서 인간과 자연을 유기적인 연관관계로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자연이 욕구충족의 대상이자 인간과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갖는 전체라는 관점은 자연의 인간화와 인간의 자연화를 모두 가능하게 한다. 자연은 그 자체로서 물적 자연과 언어를 매개로 한 텍스트로서 자연으로 나눌 수 있다.<sup>20)</sup> 흙으로 흙벽돌을 만들어 집을 짓듯, 인간은 물적 그 자체로서 자연을 자신의 욕구와 목적에 따라 노동을 매개로 변형 생성하여 생산한다. 자연 안에서 인간도 다른 생명처럼 신진대사를 하고 번식하며 생존하고 다른 생명과 밀접한 연관관계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에서 보듯, 인간은 물적 그 자체로서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 안에서 생물적이고 물리적인 형성을 하며 생존한다. 한 승려가 반달에서 공(空)의 의미를 떠올리고 이를 퍼트리듯, 인간은 자연을 하나의 텍

19) K. Marx, *The Economic and Philosophic Manuscripts of 1844*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 1964), p. 181

20) 여기서 텍스트의 의미는 어떤 질서로 짜여 있고 이를 통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맥락(context)과 대비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줄저, 『화쟁기호학, 이론과 실제』(서울: 한양대출판부, 1999), p. 88

스트로 간주하고 이에서 질서를 발견하고 언어를 매개로 이를 의미로 생성하여 소통한다. 강가에서 새소리와 물소리를 들으며 생태시를 쓰는 시인에서 보듯, 인간은 자연과 만나 이를 구체적으로 교감하고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자연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내면화하고 이에 부합하는 사고를 하고 의미를 표출한다. 자연은 그 자체로서 물적 자연과 텍스트로서 자연의 두 측면을 동시에 함유한다. 인간은 그런 자연을 인간화하는 동시에 인간의 사고와 의미와 삶을 자연화한다. 자연의 인간화와 인간의 자연화는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이를 간단히 하면 아래와 같다.<sup>21)</sup>

<표1> 물적 자연 그 자체와 텍스트로서 자연의 함의

구분	자연의 인간화	인간의 자연화
그 자체로서 물적 자연	노동을 매개로 자연을 변형생성하여 생산함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의 생·물리적 형성과 생존
텍스트로서 자연	자연의 질서에서 의미를 생성하고 소통함	자연의 질서와 아름다움의 내면화와 이에 부합하는 사고와 의미 표출

여기서 자연의 인간화와 인간의 자연화를 종합하는 것은 ‘생태적 노동’을 하거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는 것이다. 생태노동이란 자연의 순환과 재생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여 자연의 가치를 개인의 생존과 중생 구제, 삼보에 시여하는 가치로 전환하는 행위이다. 이때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자연의 내재적 가치

21) 지금까지의 논의는 필자가 나름대로 프레임을 설정하고 논증하였지만, 최병두, 앞의 글, 214~215쪽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를 인정하는 것, 인간을 정신과 육체로 나눈 이분법에서 벗어나 몸으로 보는 것이다.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면, 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인간의 노동이 자연을 무조건 도구화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는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곧, 노동을 통하여 생산한 가치와 자연이 본래 지닌 내재적 가치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게 되며, 전자의 가치가 후자의 가치보다 적을 경우 자연의 착취와 개발은 제한된다. 이때 자연에 대한 인간의 목적을 새로운 합리성에 기반하는 제한된 방법이다. 새로운 합리성이란 바로 목적지향적 합리성에서 벗어나 생태적 삶과 소통을 추구하는 화쟁적 합리성이다.<sup>22)</sup> 상품 생산과 더 많은 이윤 추구가 아니라 인간 사이의 소통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와 개발 사이의 합리적인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인간은 화쟁적 합리성에 입각하여 자연을 개발한다.

인간은 인간이고 자연은 자연이므로 하나가 아니다. 인간이 자연에서 나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자연은 인간을 만들었다가 다시 자연으로 품으니 둘도 아니다. 인간이 자신의 몸이 자연의 일시적 결합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던지면 자연과 하나가 하고, 자연 또한 자신의 몸을 던져 인간세를 이룬다. 자연의 인간화와 인간의 자연화 또한 불일

22) 화쟁적 합리성이란 목적지향적 합리성이 내포하고 있는 실체론과 이분법, 인간중심주의, 이성중심주의, 인간과 자연의 대상화, 이성의 도구화를 비판하고 이를 화쟁의 패러다임으로 극복하면서도 이성의 계몽성과 과학적 합리성은 포용한 것이다. 일심(一心)으로 돌아가면서도 이문(二門)을 아우르고, 진여문을 추구하면서도 생멸문을 원용시키려는 화쟁의 패러다임 아래 목적이 아니라 소통 그 자체가 목적이고 자연과 상생하고, 타자와 공존하는 합리성을 한데 아우른 것이다. 상세한 논의는 [졸고, 「은 생명을 아우르는 화쟁적 합리성에 대하여」, 『생명에 관한 아홉 가지 에세이』(서울: 민음사, 2002)]를 참고하기 바란다.

불이(不一不二)의 관계다.<sup>23)</sup>

경제 실적과 사회진보의 계측을 위한 위원회는 GDP 이외에 삶의 질을 측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들은 주관적인 행복개념, 적절하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능력과 조기 사망을 피할 수 있는 능력 등 생활 여건에 개인이 선호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역량, 공정한 배분 등의 세 가지의 개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sup>24)</sup> GDP 및 목적적 합리성의 패러다임에서 보면, 특정 지역의 개발을 간척하고 개발하여 그곳에 공장을 건설하여 생산하는 가치가 매년 8억 원이고, 그 개발을 그대로 보존한 채 그곳에서 생산되는 어패류의 가치가 매년 3억 원이라면 개발을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그 개발에서 물고기가 산란하고 성장하는 가치가 2억 원, 개발의 미생물이 바닷물을 정화하는 가치가 3억 원, 개발을 바라보고 거닐며 얻는 정서적 행복감의 가치가 매년 2억 원이라면, 개발의 개발을 중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생태적이고 소통적인 합리성을 보편화하면, 나라나 지역의 경제도 GDP나 무역량 등 양 중심의 경제적인 가치만이 아니라 이런 자연의 내재적 가치, 지속가능한 개발의 가능성 등 삶의 질 중심의 생태적 가치, 인간의 행복지수도 경제적 가치에 포함하는 경제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이때 개발의 모든 생태계가 순환하고 유지되는 범위에서 행하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노동, 예를 들어 제한적인 어패류의 채취와

23) 不一不二의 화쟁을 통한 화쟁적 합리성에 대해서는 논증을 생략함. 각주 22번의 글을 참고하기 바람.

24) 조지프 스티글리츠, 아마르티아 센, 장 폴 피투시, 박형준 옮김 『GDP는 틀렸다』(서울: 동녘, 2011), p. 122-124

가공, 양식업, 개펄관광 등은 양자의 공존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처럼, 생태 경제학이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화쟁적 합리성에 따라 생태노동을 하여 생산한 가치를 개인의 생존과 증생 구제, 자연의 순환과 재생에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경제학이다.

## 6. 불교공동체의 사회경제학

한 노동자가 아무리 자성적 사고와 집착을 깬다 하더라도 홀로 전적으로 환멸문의 노동을 하기 어렵다. 이 체제 안에서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신자유주의 체제를 해체하고 화쟁의 사회경제학을 구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은 99%가 각성을 하고 연대하여 국가와 자본의 연합체를 전복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힘의 역학관계상 쉽지 않다. 지금 권력은 과도하게 비대칭적이다. 모든 무기와 정보와 자본은 국가와 자본의 연합체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은 지역 단위의 불교 공동체를 만들어 이곳에서 화쟁의 사회경제학을 실천하고 완성하는 것이며, 지역 곳곳에 이를 만들어 신자유주의 체제를 안으로부터 내파하는 것이다. 이런 불교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논리의 싹을 화쟁에서 찾아보자. 연기적 존재로서 깨달음을 한 차원 더 높게 승화한 것이 원효의 진속불이(眞俗不二)론이다.

“평등한 상(相)이 또한 공(空)하다”란 곧 진제(眞諦)를 융합하여 속제(俗諦)로 삼은 “공공(空空)”의 의미이니, 순금을 녹여 장엄구를 만드는

것과 같다. …… “차별상(差別相) 또한 공(空)하다”라 한 것은 이 속제를 다시 융합하여 진제로 삼은 것이니, 이것은 장엄구를 녹여 다시 순금으로 환원시키는 것과 같다. …… 또 처음의 문(門)에서 “속제를 버려서 나타낸 진제”와 제2의 공(空) 가운데 ‘속제를 융합하여 나타낸 진제’인 이 2문의 진제는 오직 하나요 둘이 아니며, 진제의 오직 한 가지로 원성실성(圓成實性)이다. 그러므로 버리고 융합하여 나타낸 진제는 오직 하나이다.<sup>25)</sup>

금덩이를 녹여 금반지로 만들고 금반지를 녹이면 다시 금덩이로 돌아간다. 금반지에도 이미 금의 본성이 담겨 있다. 진제와 속제, 부처와 증생도 마찬가지다. 증생의 마음은 본래 하늘처럼 청정하고 도리에 더러움이 없기에 증생은 경계를 지어 세계를 바라보지 않는다. 다만 본래 청정한 하늘에 티끌이 끼어 더러운 것처럼 무명에 휩싸여 경계를 지어 세계를 바라보니, 이 경계는 허망한 것이다. 이 모두 마음의 변화로 인하여 생긴 것이니 만일 마음에 허망함이 없으면 곧 다른 경계가 없어지고 증생 또한 본래의 청정함으로 돌아간다. 유리창만 닦으면 하늘이 다시 청정함을 드러내듯, 무명만 없으면 본래 청정한 증생 속의 불성이 스스로 드러나 증생이 바로 부처가 된다. 그러니,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圓成實性], 부처와 증생,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가 둘이 아니요 하나요, 증생이 곧 부처다.

25) 元曉, 『金剛三昧經論』, 卷中, 『韓國佛教全書』, 제1책, 東國大學校 佛典刊行委員會 編, 『韓國佛教全書』(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9), 639下-640上: “平等之相亦空即是融眞爲俗 空空之義 如銷眞金作莊嚴具 …… 差別亦空還是融俗爲眞也 如銷嚴具還爲眞金……又初門內 遣俗所顯之眞 第二空中 融俗所顯之眞 此二門眞 唯一無二 眞唯一種 圓成實性 所以遣融所顯唯一”

그리하여 저 아름다운 연꽃이 높은 언덕에 피지 않는 것과 같이 내가 부처가 되었어도 열반의 성에 머무르지 않으며,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는 것과 같이 세간의 중생을 구제한 뒤에 열반을 얻는다. 깨달음이란 어떤 계기를 통하여 세계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인식하여 온갖 경험과 기억과 의식을 찰나적으로 재배열하는 것이자 ‘참나[眞我]’를 찾아 존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깨달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가 나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이고, 그를 위하여 그리로 가 그들과 함께 하며 그들의 고통을 없애 주는 것이 바로 자비행이다. 타자를 구원하거나 계몽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 속에 숨어있는 불성을 드러내며, 이 순간 나 또한 부처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기에, 진정한 깨달음은 내가 그리로 가 그를 완성시키고 그를 통해 다시 나를 완성하는 행위다. 원효는 열반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부주열반(不住涅槃)을 추구하였고, 이를 몸소 실천하고자 누더기 옷을 입고 박을 두드리며 중생 속으로 내려갔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선언』에서 적극적 자유는 사회적 개인들의 자기발전이므로 각 개인이 타자를 더 많이 향상시켜 줄수록 그들 각자의 발전의 여지는 더욱 커진다고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체가 들어선다.”<sup>26)</sup>라고 선언한다. 마르크스가 볼 때 개인은 사회 관계 속에 있는 개인(individuals in social relation)이다. 개인이 자신과 타자와 관계를 인식하고 진정한 자기를 실현하고

26)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지음, 『공산주의 선언』, 김태호 옮김(서울: 박종철출판사, 1999), p. 37

자 할 때 주체가 된다. 주체는 모든 구속으로부터 자유라는 소극적 자유(from freedom) 뿐만 아니라 자기 앞의 장애와 소외를 극복하고 진정한 자기를 실현하면서 적극적 자유(to freedom)를 쟁취한다. 더 나아가 주체는 타자와 자신이 사회 관계 속에서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깨닫고 타자의 자유를 더 확대하려는 대자적 자유(for freedom)를 구현한다.

마르크스가 추구한 이상 사회는 개인이 사회 관계성과 주체성을 함께 인식하고서 정의, 곧 타자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서로 노력하는 사회이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나 아닌 다른 이를 좀더 행복하고 자유롭게 하려고 서로 갖은 실천을 다하는 사회를 꿈꾸었다. 가진 자, 못 가진 자 없이 모두가 모여 함께 할 일을 정하고 일하는 자들이 땅과 공장을 공유한다. 이곳에서 노동은 더 이상 소외된 노동이 아니다. 가치를 생산하고 자기 앞의 장애와 소외를 극복하여 자신의 본성을 구현하고 진정한 자기를 실현하는 방편이자, 세계를 자신의 목적대로 변형하는 실천이다. 더 나아가 나의 노동을 통하여 타인을 자유롭게 하는 이타적(利他的)인 동시에 대자적(對自的)이고 적극적인 자유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각자의 능력을 따름에서 각자의 필요에 따름으로”라는 그가 제시한 원칙에 나타난 대로 사람들은 우열이 아니라 차이에 따라 존재의의를 가지며 능력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생산하고 분배한다. 타인을 자유롭게 하여 나는 더 자유롭게 되고 자유로워진 나로 인하여 타인은 더욱 자유롭게 된다. 이 순간 자유는 나 아닌 타자를 더욱 자유롭게 하는 실천으로서 정의와 부합한다. 정의 또한 자유를 전적으로 발전시키는 조건이 된다. 자신의 자유로서 진정한 자기실현을 달성한 개인은 상호관계성으로서 정의가 실현되고 적극적

인 자유를 구현하는 조건에 각 개인이 평등한 권리를 갖는 것이 인정되는 공동체를 요청한다.<sup>27)</sup>

이제 근본적으로 자본주의나 국가 외부가 아니라 그 안에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모두 극복할 수 있는 진지이자 그를 대체할 체제인 대안의 코뮌을 만들어야 한다. 공포에 맞서고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제국이 동일성의 패러다임에서 타자를 상징하고 그를 배제하고 폭력을 가한 것을 지양하려면, 대중은 눈부처-주체로 거듭나야 한다.

눈부처-주체는 원효의 화쟁 이론, 특히 변동어이(辨同於異)론에 바탕을 한 것이다. 눈부처-주체는 타자와 무한한 연관 속에서 차이와 가유(假有)로서 주체를 형성하는 자다. 그는 주체로서 모든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소극적 자유를 추구함은 물론, 부조리한 세계에 저항하여 이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개조하는 행위를 통해 자기를 실현하는 적극적 자유 또한 구현한다. 하지만, 눈부처-주체는 이에 머물지 않고 동일성의 사유를 뛰어넘어 내 안의 타자, 타자 안의 내 모습을 동시에 보는 자이면서 타자 속에서 불성(佛性)을 발견하여 그를 부처로 만들고 이 과정을 통하여 자신도 부처가 되려는 자다. 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기적 욕망을 자발적으로 절제하고,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대하며 타자를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하는 실천을 하면서 진정한 자기를 완성한다. 자기 소외와 노동의 소외를 극복하고 자기의 혁명과 사회 혁명을 종합한다. 이 순간에 느끼는 희열이 바로 대자적 자유이

27) Carol C. Gould, *Marx's Social Ontology—Individuality and Community in Marx's Theory of Social Reality*(Cambridge: The MIT Press, 1980), p. 178.

자 아우름의 ‘신명’이다.

하지만, 현실은 대중들이 눈부처-주체로 거듭나지 못한 채 욕망의 노예와 지배층에 휘둘리는 어리석은 우중으로 머문다는 점이다. 모두가 눈부처-주체가 된다 하더라도 부단한 자기해체와 이를 제도화하는 시스템이 없다면 언제든 눈부처-주체성을 상실할 수 있다. 때문에 사회 자체를 새로운 체제로 변혁해야 한다. 절충적인 제3의 길을 넘어선 대안은 화쟁의 패러다임 속에서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여전제(閭田制), 렉토르스키의 페레스트로이카를 결합한 눈부처공동체다.

눈부처공동체는 구성원 각자가 눈부처주체로서 실존하고 실천한다. 눈부처 공동체는 공동으로 생산하고 분배한다. 모든 생산수단과 도구는 공동의 소유다. 이 공동체 생산의 60%는 필요에 따른 공동생산과 공동분배를 한다. 나머지 20%는 재투자를 하며, 10%는 개인의 능력 별로 인센티브를 주어 개인의 창의력을 발휘할 동기를 부여하며, 10%는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더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 대자적 자유를 구체화한다.

능력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노동, 장애를 극복하는 자기실현으로서 노동, 철저히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 노동을 한다. 그것이 불가능한 도시의 공동체는 유기농 농사를 짓는 농촌공동체와 연합관계를 형성한다. 단기적으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로컬푸드와 연결시키고 민중을 자각시키고 조직하여 신자유주의를 내파하는 진지로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 곳곳에 코뮌을 만들어 이를 대체하는 사회구성체로 구성한다.

몬드라곤처럼 노동이 자본을 통제하며, 노사관계는 진속불이의 관계가 되도록 한다. 경영자와 노동자는 하나가 아닌 동시에 둘도 아니

다. 노동자들이 총회에서 자신들 가운데 이사를 선출하고 이들이 노동자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일정 기간 동안 경영과 중요한 결정을 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노동자로 돌아간다. 이사들이 전문 경영자를 외부에서 초빙할 수도 있는데, 경영진은 총회 및 이사들의 통제를 받는다.

구성원간 노동의 목적과 방법에서부터 분할 비율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을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권력을 갖고 참여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모든 사람의 가치와 권력은 사회적 지위, 젠더, 나이, 재력에 관계 없이 1 대 1로 동등하다. 중요한 안건은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결정하며, 모든 구성원이 1인 1표의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 가족 단위의 사생활은 보장하고 간섭도 하지 않되, 이를 벗어난 공동체의 정책과 실현, 규약의 제정과 집행, 재정 운영 등의 문제는 모든 이들이 동등한 권력을 갖고 참여하여 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결정한다.

시장과 자본제의 외부에서 물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편으로 따로 마을 화폐를 만들어 사용한다. 단 마을 화폐는 7일마다 10%의 가치가 감소되고 7주 후에는 0원의 가치를 갖게 하여, 가치척도, 유통수단, 축적수단, 지불수단, 세계화폐 등 화폐의 다섯 가지 기능 가운데 가치척도와 유통의 기능만을 수행한다. 외적으로는 불일불이(不一不二)의 패러다임을 따라 공동체와 다른 집단을 네트워킹하고, 내적으로는 진속불이(眞俗不二)의 원리에 따라 구성원간 상호주체성과 상호성을 높이는 것이다.<sup>28)</sup>

28) 지금까지 눈부처와 눈부처 공동체에 관한 기술은 좋고, 「문명사적 전환을 위한 새로운

학교는 따로 대안의 학교를 만들며, 지성, 야성, 감성, 연대를 함양하는 교육에 초점을 맞추되, 가르치는 것은 최소화한다. 우열이 아니라 차이에 의해, 각자가 동등한 능력과 재능의 소유자란 관점에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학습한다. 책 읽고, 사색하고,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고 서로 토론하고 함께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고 아름다운 것을 가슴에 담고 의롭지 못한 것에 저항하고 연대하는 감성을 기른다. 우리 전통의 놀이와 예술 가운데 공동체적이고 생태적이고 민중적인 것을 부활하여 활성화하며 다른 나라의 문화 예술도 똑같이 존중하여 수용한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약자와 함께 하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공감의 연대와 정의로운 실천을 몸에 스미게 한다. 필요에 따른 노동을 최소화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 어울려 노는 데 할애한다.

구성원은 욕망의 자발적 절제를 통한 소욕지족(少欲知足)의 삶으로 전환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청규를 둔다. 이렇게 운영되되, 확고하게 정의관을 확립하고 깨달음에 이른 자라도 언제든 탐진치에 물들고, 이기심과 욕망에 기울어질 수 있기에 깨달음이 곧 집착이라는 명제 아래 매일 일정한 시간에 수행하고 참회한다.

여기서 자연환경과 공존하는 도농(都農)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대안인데, 이것 또한 일정한 이윤을 내야 한다. 자비행을 실천하면서도 이윤을 확보하는 대안은 코퍼티션(co-opetition)의 원리를 경영에 응용하는 것이다. 원효는 일심(一心)과 이문(二門), 진여문과 생멸문의 화쟁을 모색한다.

패러다임의 모색- 불교와 서양의 대화를 통하여, 『불교평론』, 40호, 2009년 가을호, p. 19-30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진제와 속제는 둘이 아닌 동시에 하나를 지키지 않는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곧 일심이요, 하나를 지키는 것도 아니기에 체를 들어 둘로 삼는 것이니 이것을 일러 一心二門이라 한다. 이상이 그 대의이다.<sup>29)</sup>

깨닫지 못한 자는 세계를 둘로 나누어 인식한다. 그러나 앞 장에서 이야기하였듯 세계는 하나다. 그러나 세계는 하나다.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하나지만, 중생들의 일상에서 보면 이데아와 그림자, 주와 객 식으로 모든 것이 둘로 나누어져 있으니 하나에 머무르면 일상의 삶을 영위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를 고집하지도 않는다.

분별심을 떠나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 일상에서 깨달음의 세계, 더러운 세계에서 청정한 세계, 허위에서 참을 지향하고자 하면 진여 실체는 하나이다. 하지만, 깨달음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중생을 구제하고자 중생을 향하여 나아가 중생과 더불어 실천하고 생각하며 그들을 깨우치고자 하면 세계를 둘로 말해야 소통이 가능하다. 그러니, 진여실체가 하나이지만 둘로 가르는 것은 용(用)이요, 둘이 허상임을 깨닫고 하나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체(體)이다. 이처럼 원효는 일심이문의 회통을 통하여 부처와 중생,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을 아우르려 한다.

여기서 협력(cooperation)이 일심이고 진여문이며, 경쟁(competition)이 이문이고 생멸문이다. 코피티션 이론은 게임이론을 이용하여 경쟁이 현실인 비즈니스에서 협력을 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경영의 길을 모색한다. 애플과 HP사를 예로 들며 경영이 연기적 관

개임을 간파한 점, 당위적, 도덕적으로 선의의 경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현실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 풍부한 사례를 통하여 상생 경영의 성공담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예를 들어, 밀워키에 본사를 둔, 크레인을 이용하여 원목 운반작업을 하는 하니슈페거 인터스트리(Harnischfeger Industries)사는 1970년대 중반부터 대형 지게차 대신 하역 크레인을 사용하여 이론상으로 크레인 한 대에 500만 달러를 벌 수 있었다. 문제는 경쟁사였다. 1987년에 소규모 크레인 제조사인 크랑코(Kranco)사가 시장에 진출하면서 경쟁이 시작하였다. 여기서 하니슈페거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가격경쟁을 하는 것이다. 크랑코는 부채를 매입한 회사로 자금이 부족하였기에 이 방법을 쓰면 하니슈페거사가 절대 유리한 시점에서 크랑코사를 몰락시킬 수 있었다. 또 하나는 구매자를 늘려 서로가 상생하는 길이다. 하니슈페거가 원목장 회사에 새로운 기술의 이점을 보여주면 시장을 크게 확대할 수 있었다. 크랑코사의 크레인 제작 능력에는 한계가 있었기에 새로운 고객의 대부분은 하니슈페거사의 차지였을 것이다. 하니슈페거사는 가격경쟁을 선택하였다. 크랑코사는 예상대로 파산을 선언하였으나 핀란드 굴지의 토목기술회사인 콘(Kone)이 크랑코사를 매입하였다. 이 바람에 하니슈페거사는 가격인하로 인한 손해만 본 채 더욱 강력한 경쟁자를 만났다.<sup>30)</sup> 하니슈페거사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고객을 늘리는 방법이 바로 코피티

29) 元曉, 『金剛』, 卷下, 『韓佛全』, 658-하: “眞俗無二不守一 有無二故 卽是一心 不守一故 舉體爲二 如是名爲一心二門 大意如是”

30) Adam M. Brandenburger and Barry J. Nalebuff, *Co-opetition* (New York: A Currency Book Publish, 1996), p.92-93

선적 경영이다. 닌텐도와 TWA사는 코피티션의 경영을 하여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처럼 참가자, 경쟁자, 보완자, 부가가치, 규칙, 전술 등이 서로 연기적으로 영향을 끼침을 고려하여 코피티션의 경영을 하면 상생을 하면서도 이윤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 7. 맺음말

신자유주의 체제는 인간을 상품화폐의 노예로 만들며 탐진치를 끊임없이 확대재생산하고 이를 제한하려는 모든 제도를 규제란 이름으로 무장해제시켜, 양극화와 갈등을 심화하고 세상을 지옥과 가까운 곳으로 만들었기에 반불교적이다. 이 체제를 노동거부나 소비축소를 통하여 해체할 수 있는데, 전자에 가장 유용한 이론이 맑시즘이라면, 후자는 불교다. 이에 양자를 종합하여 대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를 화쟁의 사회경제학으로 명명한다.

우리가 불일불이(不一不二)의 연기론에 따라 타자란 서로 조건이 되고 상호작용하고 있는 또 다른 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타자를 위하여 나의 욕망을 자발적으로 절제할 수 있다. 화쟁의 사회경제학은 소욕지족(少欲知足)의 삶을 지향하면서 타자들과 재화를 나누면서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자비의 경제학’이다.

우리가 연기론과 불살생의 교리에 따라 지구상의 온 생명체가 깊이 연관되고 서로 작용하고 있음을 깨달으면, 자연을 훼손하고 생명을 죽이는 일을 멈추고 자연과 공존을 추구하고 온 생명을 내 몸 같이 귀중하게 여기게 된다. 화쟁의 사회경제학은 인간의 목적에 따라 자연을

개발하여 물질적 생산을 해내고 상품화폐적 가치를 창조하는 현대성의 경제를 반성하고, 자연의 본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자연의 일부인 인간의 자기실현으로서 노동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개발과 가치 창조를 추구하는 ‘생태 경제학’이다.

현재 상황에서 화쟁의 사회경제학을 국가 단위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일은 힘의 역학관계상 쉽지 않다. 화쟁의 사회경제학은 지역사회를 ‘눈부처-공동체’로 전환하면 가능하다. 눈부처 공동체는 모든 구성원이 개인적 자유와 깨달음을 추구하면서도 타자를 자유롭게 하여 자신의 자유를 완성하는 주체가 되어 서로 상생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경제를 추구하는 공동체다.

## 참고문헌

- 元曉, 『金剛三昧經論』, 『韓國佛教全書』, 제1책. 東國大學校 佛典刊行委員會 編, 『韓國佛教全書』(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9).
- Brandenburger, Adam M. and Nalebuff, Barry J.. *Co-opetition*(New York: A Currency Book Publish, 1996).
- Gould, Carol C.. *Marx's Social Ontology-Individuality and Community in Marx's Theory of Social Reality*(Cambridge: The MIT Press, 1980).
- Harribey, Jean-Marie. "Ecological Marxism or Marxian Political Ecology?", Bidet, Jacques and Kouvelakis, Stathis (eds.). *Critical Companion to Contemporary Marxism*(Leiden/Boston: Brill, 2008).
- Ling, Trevor. 『붓다, 마르크스 그리고 하나님』, 김형찬 옮김, (서울: 민족사, 1993).
- Marx, K.. *Capital*, Vol.3(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67).
- Marx, K.. *The Economic and Philosophic Manuscripts of 1844*(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 1964).
- Marx, Karl & Engels Friedrich, 『공산주의 선언』. 김태호 옮김(서울: 박종철출판사, 1999).
- Stiglitz, Joseph E., Sen Amartya, Fitoussi Jean-Paul, 『GDP는 틀렸다』, 박형준 옮김 (서울: 동녘, 2011).
- 강 수돌.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근본 문제와 삶의 대안」, 『신자유주의와 이주노동』, 제2회 이주노동자운동 정책심포지움 자료집, 2004년 11월.
- 박 경준. 『불교사회경제사상』(서울: 동국대출판부, 2010).
- 유 승무. 「불교와 맑시즘의 동몽이상(同夢異床)」, 『불교평론』, 40권, 2009년 9월 1일.
- 이 도흠. 「문명사적 전환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불교와 서양의 대화를 통하여」, 『불교평론』, 40호, 2009년 가을호.
- 이 도흠. 「빈곤의 세계화를 넘어 화쟁의 세계체제로」, 『문학과 경제』, 제6호, 2002년 가을호.
- 이 도흠. 「온 생명을 아우르는 화쟁적 합리성에 대하여」, 『생명에 관한 아홉 가지 에세이』(서울: 민음사, 2002).
- 이 도흠. 『화쟁기호학, 이론과 실제』(서울: 한양대출판부, 1999).
- 조 원희. 「신자유주의 이후의 경제」, 『진보평론』, 제42호, 2009년 겨울호.
- 종명. 「왜 일하며 수행해야 하는가」, 『불교평론』, 19호, 2004년 가을호.
- 최병두, 「자연의 지배, 탈소의, 승인-맑스주의적 생태학에서 인간과 자연 간 관계의 재고찰」, 『도시연구』 제3호, 한국도시연구소, 1997.
- 《연합뉴스》, 2011년 4월 25일자.
- 《한겨레신문》, 1997년 6월 13일자.

# The Socioeconomics of Hwajaeng as the Alternative to Neoliberalism

Lee, Do-heum  
Hanyang University

Neoliberalism promotes low wages and high inequality, and leads to global environmental crisis. Neoliberalism structure increases man's greed of gain without limitation. Because this structure is oppose to the teachings of Buddha. We can dissolve this structure through worker's refusal of labour or citizen's moderation of consumption. Marxism is the most valuable theory while practicing the former: Buddhism for the latter. So, while synthesizing Buddhism and Marxism, I propose to the socio-economics of Hwajaeng as the alternative for Neo-liberalism.

Realizing that all men are in the relation of dependent origination, we come naturally to moderate his desire voluntarily for the other of the 'we' as much as parents make great sacrifices for their children. The socioeconomics of Hwajaeng seek after the sharing of wealth.

Realizing that all lives are interact with each other, we learn to

understand that Nature is not the object of exploitation but the part of coexistence. The socioeconomics of Hwajaeng pursues the ecologic symbiosis.

The power is concentrated in the association of the state and the capital excessively. So, the socioeconomics of Hwajaeng can embody not on a nationwide scale but on a local community scale. In the commune of 'Buddha-in-eye,' an individual overcomes the reasoning of self-entirety and, at the same time, looks for his shape inside others and others inside himself, lets others become a Buddha through discovering innate Buddha mind inside others, and finally he himself is to become a Buddha through this process. This commune embody the socioeconomics of Hwajaeng which purses a true the sharing of wealth and the ecologic symbiosis.

## Key Word

Neoliberalism, the socioeconomics of Hwajaeng, Wonhyo, Marx,  
Hwajaeng, the commune of Buddha-in-eye, dependant origination

✎ 투고일자 2012.11.19 | 심사일자 2012.11.29 | 게재확정일자 2012.12.13